

“ 위로하라 내 백성을! ”

■ 이종윤 원로목사

선지자는 도탄에 빠진 백성을 내 백성이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 한다. 이 사야 때나 바벨론 포로기에든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들의 메세지는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버리시거나 고통 중에 있게 하시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이라 외쳤다. 선지자의 과업은 백성을 책망만 한 것이 아니고 감화 감동적인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주어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정계의 막대기를 드시고 진노의 지팡이를 드시어 죄인들을 때리시지만 그들이 회개할 때엔 위로와 소망도 주신다.

혼돈된 이 사회를 말씀으로 재창조해야

오늘날 우리 사회는 영적 영역을 책임진 교회가 혼돈에서 헤매이고 있으니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전체가 대혼란을 겪고 있다. 감사원장, 검찰총장이 혼들리고 통진당 이석기 의원의 RO반란사건, 야당의 장외투쟁 등 견잡을 수 없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백성들이 어디서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선 죄를 없애야 하고 그 다음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하며 쫓값대로 처치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 백성에게 영적 안위와 위로가 임한다. 이 같은 위로는 죽은 조상이나 우상이 줄 수 없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대속 자로 오셔서 그가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공훈과 위로를 받게 된다. 그의 구원의 약속된 말씀으로 우리는 새롭게 다시 창조되어야 한다.

메시아를 모신 자는 그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골짜기 같은 음흉하고 거짓된 마음이 사라지고 산과 언덕같이 교만한 마음이 낮춰진다. 정치권의 여아가 당리당락에 치우쳐 자기 정당성만 주장하면서 극과 극으로 대립하는 이들에게 메시아가 오셔야 기쁨이 심한 감정도 정리되고 모든 험한 곳 같은 강박한 심정도 퍼진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를 모신 자에게 참 위로와 평안히 임한다.

마르는 풀과 같고 시드는 꽃과 같은 인생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 모든 것 육체의 소욕은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영구하지 못하다. 그러나 메시아를 모시면 노역의 때가 끝나고 최악은 사함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풀과 꽃 같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구원을 기대할 수도 없다.

감찰하시고 다스리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보라. 유대인을 애굽과 바벨론에서 끌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다. 우리 백성을 일제 36년의 억압에서 해방시키고 6.25의 폐허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을 보자. 상급과 보응이 그 앞에 있기 때문이다. 그의 팔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매우 큰 상급은 복음이고 그 복음을 거절하는 이는 보응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목자같이

하나님은 양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목자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해, 인도, 인내, 은혜, 애착으로 돌보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찾으시고 구원하신다.

뒷면으로 계속☞

앞면에서 계속

하나님을 앙망해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지혜, 위대하심은 어느 우상이나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창조주 되시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해야 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기를 그에게 맡기는 이에게 달음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니 독수리처럼 비상 고공을 하며 승리와 희락을 맛보는 위로를 체험케 된다. 너희는 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백성을 우리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참 위로를 받게 하자.

－한국장로신문 [1383호] 2013년 9월 21일에서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astor: David John]
* Call to Worship	John 4:24 Pasto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Sally David
Hymn	36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Matthew 4 :12-25 Pasto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astor
Anthem	Congregation
Sermon	"The Beginning of King's Ministry" Pastor
* Hymn	349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서준권	
교육목사 윤누가	교육전도사 주원순 강남희 최근영
전도사(교육담당) David John Khokhar	
선 교 사 강아름주한나,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바켓잔(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율박진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복(인도), 정상진홍성일(필리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캐나), 김종일·백순미(터키)노동자, 홍쿠야 망 탕 쎌 코 카 마이 랑 사무알 레이 난 쟁 찬다 사우 키움 랑 호라 라비 벤 비에 마웅 차 짜우 미카엘 미안파 필리몬, 프로산토, 수레시 수박스 이경엽, 알로롱 비시누쁘도, 보디스프, 린툼 수란준 방글라데시, 김태식 윤왕모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 종 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혼미한 영에 잠든 세대 ”

■ 사 29:9~12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알고 싶어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년의 경기 전망을 미리 알고 싶어하고 여행가는 사람은 여행지의 날씨를 미리 알고 싶어합니다. 점보는 집들이 망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궁금해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관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우리를 외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맹인이 되라” 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 ‘잠들게 하는 영’ 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고 까지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사 6:9-10). 이 말씀은 이사가야 여호와와의 회회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선지자로 부름 받는 장면으로 이때 이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원하여 나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도 깨닫기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셨고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였고 그들의 눈이 감겨지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백성들의 영적지도자들을 맹인이 되고 귀머은 사람으로 만드신다고 하셨습니까(사 28:7). 그래서 하나님과의 계시는 봉해진 책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이 보지 않고 듣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를 돌아보지도 않고 우리의 기도도 듣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미 심판하기로 결심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맹인, 귀머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맹인과 같이 된 우리들은 살아 있지만 이미 죽은 자나 다름없습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은 분명 악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영이지만 잠들게 하는 악한 영은 심판에 이르게 하는 영입니다. 거짓의 영은 우리들에게 진실을 못 보게 하고 거짓을 진실로 믿게 하며 속이는 영입니다

3. 징조를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모르고 영적 분별력이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마 16:2-3). 우리는 이제 우리 시대의 표적을 보고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에 취해 맹인이 되고 귀머거리가 된 상태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할 우리 시대의 표적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렘7:4). 유다 백성들은 이것이 여호와와의 성전이라고 안심하다 결국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이매가 가장 위기의 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물질만 추구하는 맘모니즘과 이 사회를 혼미하게 하는 사회주의 이념과 교회 안의 변영 신학에 대해 제일 먼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나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사가 선지자 시대나, 지금이나 패역한 세대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이사는 바른 말을 했습니다. 듣던 안 듣던 백성들을 향하여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맺는 말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해야 합니다.

배금주의에 빠져서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며 무책임하게 살아온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국가적 위기에 지금까지 눈감아 온 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눈감지 마시고, 귀 막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어 대한민국의 현재의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셋째로 현재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깨닫고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말할 시기를 놓치면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대한민국에 처한 이 위기가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김철홍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양춘경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조원영 목사	최광성 장로
III 오후 2시	서준권 목사	이계홍 장로

오후 5시 · 인도: 서준권 목사, 설교: 이종윤 원로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31:7-8 인 도 자
 찬 송 220(278) 다 함 께
 기 도 지성철 집사
 성 경 요13:13-17 인 도 자
 사명자대회발대식 말 은 이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섬김의 길" 설 교 자
 * 찬 송 323(355)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

수 요 예 배

오후 7시 · 인도, 설교: 서준권 목사

기 도 김정숙 권사
 성 경 벨후 2:10-22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선지자의 미련 행동을 자처하셨나" 설 교 자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 피아니스트: 이경화 · 흥해관김양안박수강

설 교 사명철 목사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송재근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일	
III 부	임마누엘	임범창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유태왕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사 29:10)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성구			
수요 I 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교 회 소 식

◆ 모 임

1. 공동의회 소집 /

- 일시: 2017년 10월 15일(주일) 오후 12시 30분
- 장소: 본당 2층
- 안건: ① 서울교회 정관 일부 개정의 건 ② 서울강남노회에 대한 대응의 건
- 참석 자격: 본 교회 등록된 18세 이상의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2. 선교회, 전도회 10월 월례회/ 8일(주) 오후3시30분 본당

◆ 알 림

1. 101호 예배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2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에바다부 예배: 주일 오후 1시-2시30분

3. 603호 예배

소망부: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4. 609호 예배

디아스포라부: 주일 오후 1시-2시

5.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6. 706호 예배

영아, 유아,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20-12시30분

7.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주일 오전 11시20-12시30분

8.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9. 의료 상담 / 이번주 추석연휴로 인해 의료상담이 없습니다.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

10.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11. 금일 세례식 문답 실시 / 10월 세례식이 10월 15일(주) 저녁 찬양예배 시에 있습니다.

세례/입교/개종/유아세례 대상자로서 문답청원서를 작성 제출하신 분은 세례문답 최종교육이 오늘 오후1시 602호에서 있습니다. 이어서 2시부터 문답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세례 준비반(602호)로 문의바랍니다.(010-7743-3223)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p>앞면에서 계속</p> <p>12. 안주훈 목사 소개</p> <p>서울장신대</p> <p>장신대(B.D.)</p> <p>장신대 대학원(M.P.S.)</p> <p>장신대.맥코믹신대(D.Min.)</p> <p>원당반석교회 담임</p> <p>중랑제일교회 담임</p> <p>(현) 서울장신대 총장</p> <p>◆ 장 례</p> <p>1. 故 정순분 집사(15교구 정완진 집사의 모친, 김희순 권사의 시모) / 10월4일(수) 별세, 6일(금) 발인</p>
--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917명	258명	269명	1,444명	143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9/24)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9월 24일	헌금	57,433,000	
"	특별예배비		1,000,000
"	행 사 비		3,310,000
"	경 조 비		70,000
"	출 판 비		1,210,000
"	사무용품비		63,100
"	통 신 비		526,500
"	복리후생비		65,000
"	식당운영비		440,000
"	합 계	57,433,000	6,684,600